

오타니, MLB 새 역사 썼다 한 시즌 '10승-30홈런' 달성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투타 겸업 선수 오타니 쇼헤이(28, 사진)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해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 선수인 오타니는 올해 MVP 경쟁자인 애런 저지(양키스) 앞에서 전 인미답의 경지를 밟았다. 저지는 에인절스를 상대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홈런포를 가동해 51홈런으로 메이저리그 홈런 1위를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오타니는 3연전 마지막 날 보란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타니는 전날 애너하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홈 경기에서 0-2로 끌려가던 6회 1사 주

자 1, 2루에서 양키스 선발 게릿 콜을 상대로 가운데 담을 훌쩍 넘기는 결승 스리런 홈런을 쳤다.

이로써 이날 현재 오타니의 올 시즌 성적은 투수로는 11승 8패 176탈삼진 평균자책점 2.67, 타자로는 타율 0.269에 30홈런과 82타점을 기록했다.

MLB닷컴은 "이 홈런으로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에 10승과 30홈런을 동시에 달성한 첫 선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듯 홈런포를 가동해 MVP 레이스를 미궁 속으로 몰고 갔다.

오타니의 홈런을 앞세운 에인절스는 양키스에 3-2로 승리해 3연전을 2승 1패로 마감했다.

오타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30호 홈런을 쳐서 기쁘다. 큰 거 하나면 리드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스트라이크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사진=japantimes.co.jp

커리 "비시즌 건강 유지하고 경쟁력 불태워야"



스테픈 커리(34, 골든스테이트, 사진)가 후배들을 위해 조언했다.

지난 31일 농구전문매체 '투키'에 따르면 최근 토론토 랩터스의 리코 하인즈 코치가 운영하는 트레이닝캠프에 참여했던 커리는 "파이널이 펼쳐지는 6월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시간이 날 때마다 선수들의 경쟁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며 "이러한 훈련은 경기와 관련된 모든 디테일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6월에는 이때 쌓은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며 "비시즌에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을 불태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커리는 2009 NBA 신인 드래프트 전체 7순위로 골든스테이트 유니폼을 입었다.

첫 우승의 순간은 2015년에 찾아왔다. 커리는 드레이먼드 그린-클레이 탐슨과 함께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파이널에서 트브론 제임스가 견제하는 클리블랜드 케벌리어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6년에는 파이널에서 무릎을 꿇었으나 2017, 2018년에 백투백 우승을 따내며 골든스테이트의 왕조 건설을 이끌었다.

지난 시즌 커리는 파괴적인 퍼포먼스를 앞세워 또 다시 팀을 파이널로 이끌었다. 상대였던 보스턴의 젊은 패기는 커리의 노련함을 막지 못했다. 커리는 파이널 6경기에서 평균 31.2점 6.0리바운드 5.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정상에 올려놓았다. 생애 첫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는 영광도 누렸다.

커리는 다음 시즌에 코비 브라이언트, 팀 던컨 등이 달성한 5회 우승을 위해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wamiorswire.usatoday.com

디오픈 우승 스미스, LIV로 이적 '먹튀'

올해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인 디오피에서 우승한 캐머런 스미스(호주, 사진)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로 이적했다.



챔피언십, 7월 디오피에서 정상에 오르며 시즌 상금 1,010만7,897달러를 벌어들였다. 여기에 지난 28일 끝난 PGA 투어 2021-2022시즌 페덱스컵 순위 20위에 올라 보너스 64만 달러를 챙긴 후 곧바로 LIV 시리즈로 넘어갔다.

PGA 투어는 LIV 시리즈로 이적한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스미스는 LIV 시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LIV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는 이날 "스미스와 마크 리슈먼(호주), 호아킨 니만(칠레), 아나르 반 라히리(인도), 해럴드 바너 3세, 캐머런 트링갈리(이상 미국) 등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던 선수 6명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스미스는 현재 세계 랭킹 2위로 LIV 시리즈 소속 선수 가운데 가장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가 됐다.

스미스는 PGA투어 통산 6승 중 3승을 올해 거뒀다. 1월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 3월 플레이어스

리즈와 계약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PGA 투어 2021-2022시즌을 완주, 거액의 상금을 받으며 '먹튀'라는 눈총을 받았다.

다만 보너스 64만 달러 가운데 절반인 32만 달러는 은퇴 후 연금 형식으로 받게 돼 있어 실제로 스미스가 받을 보너스는 32만 달러가 될 전망이다.

사진=pgatour.com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

